

19일 Market Index			
↓ 코스피	2795.46	↑ 코스닥	828.72
	(-28.89)		(+6.24)
↑ 금리 (연이자율)	3.074	↑ 환율 (원/달러)	1390.20
	(+0.016)		(+8.50)

신흥재벌이 걸어온 길
서장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03



中 견제, 韓 배터리 수혜 vs IRA 폐지, 혜택 축소 우려

〈인플레이션 감축법〉

‘트럼프 2.0’ 산업계 촉각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한국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중국 견제’와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거론되며 주요 산업별로 다양한 영향이 예측된다. 가장 큰 파급을 받을 것으로는 추측되는 분야는 이차전지·자동차 업계다. 〈관련기사 4면〉

21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월 5일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로 인해 국내 기업에 끼칠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에서 제시한 ‘제2기 집권 청사진’에서 1기 정부 때 이상의 미국 중심의 고강도 대외·산업·통상 정책 등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2기 IRA 지원 축소 가능성
車 산업엔 오히려 긍정적 작용 시각”

‘보호무역’ 강화, 관세 확대 거론
중국산 200%… 반사의 목소리

트럼프 당선 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이차전지와 전기차 분야가 수혜를 입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미국의 중국 견제가 더욱 거세지면, 중국이 핵심 전략 자산으로 내세우는 이차전지와 전기차 산업이 타격을 입을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의 직격탄을 맞은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에 약화된 실적을 보완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는 IRA 법안이 폐기까지는 어려울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IRA 법안이 폐기되면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양당에서 압도적인 좌석을 가져야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또한 미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 우위를 지니지 못하고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기차 지원 정책을 폐기하는 힘들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IRA 혜택 축소를 시행할 가능성은 높아, 이에 대한 협상 카드를 준비하는 등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따른다.

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정부 역시 배터리 요건 시행 지침, 해외우려기관(FEOC) 가이드 등 법 발효 이후 행정부의 별도 시행 지침으로 IRA에 변화를 유발한 전례가 있다”며 “트럼프 측이 정책 효과에 비해 정부 재정 투입 규모가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이유로 IRA 폐지를 주장하는 만큼 트럼프 2기는 행정명령을 통해 IRA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자동차 산업은 IRA 축소가 오히려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전기차 수요가 감소하는 부분은 한국 자동차 기업들에 다소 부정적이지만,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차량의 경쟁력도 높기 때문이다.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관세 확대도 함께 거론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최소 60%에서 최대 20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중국산 부품이 한국산으로 대체돼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면에 계속) / 저현정 기자 hyeon@metrosoul.co.kr



태극기 휘날리며… 韓 선수단, 파리 입성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 기수 구분길, 정강선 선수단장을 비롯한 선수단 본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을 통해 입국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비스 분산·이중화로 제2의 IT대란 막아야

‘IT 대란’ 초연결 사회 위험성 드러나
MS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 사태로
세계 원도기반 기기 850만대 영향

소프트웨어(SW) 공급망 관리 부실 사례로 기록될 글로벌 IT 대란은 같은 기술을 사용하며 하나로 묶인 초연결 사회의 위험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특히 소수 기업의 기술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해당 기술의 사소한 오류조차 대규모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분산과 이중화의 중요성이 떠오르고 있다.

세계 곳곳 공항과 병원·기업·기관들의 업무용 PC를 마비시킨 원인이 보안 서비스의 회사의 업데이트 파일 오류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클라우드스트라이크라는 보안 회사의 제품 업데이트 파일이 마이크로소프트(MS) 원도 파일과 충돌했던 것.

마이크로소프트(MS)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 사태로 전 세계 원도기반 기기 850만 대가 영향을 받았다고 MS 측이 20일(현지시간) 밝혔다.

IT전문가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세계 유명 보안 회사인데 업데이트 파일 배포 전 고객사의 운영체제(OS)와의 충돌 여부를 테스트하는 과

정이 부실했다는 설명이다.

한번 설치되면 전체 고객사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SW 배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SW 개발부터 배포 방식까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항공업계도 이번 사태의 영향을 받았다. 결항은 없었으나 ▲제주항공 47편 ▲이스타항공 26편 ▲에어프레미아 2편 등 항공기 지연이 발생했다. 세 항공사 외의 국적사들은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4면에 계속〉

/박대성 기자 iunms@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피셔브 포럼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RNC) 마지막 날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대선 후보 지명을 공식 수락하는 문서에 서명하고 있다. AP/뉴시스

경기도 ‘7800억 투자’ K-컬처밸리 백지화… 시민들 분노

경기도가 지난 1일 CJ라이브시티와의 K-컬처밸리 복합개발단지 사업협약 해제를 발표하면서 파문이 커지는 분위기다. 경기 북부의 최대 개발사업을 백지화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

경기도는 두 차례에 걸친 기자회견과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며 성난 민심을 진화하려 나섰다. 기대가 컸던만큼 거센 여론을 진화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의지는 2015년 등록된 법인 형태에서부터 엿볼 수 있다. 민관합동 공모사업은 통상 PFV(프로젝트 금융회사) 및 SPC(특수목적회사)가 주체가 되지만, CJ라이브시티는 사업협약 직후 CJ그룹의 신규 계열사 법인으로 설립됐다.

특히 국내 최초로 전 세계 1위 스포츠·엔터테인먼트 기업 AEG로부터 투

자를 유치했다. AEG는 미국 크립토타컴 아레나, 영국 O2아레나 등의 운영사로, 아레나 및 컨벤션 센터 등 주요 복합문화시설의 개발, 임대, 시설 운영 등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가진 글로벌 전문 기업이다.

AEG는 2019년, CJ와 첫 MOU 체결 후부터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해왔다. 〈2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대통령실, 김 여사 검찰 출석에 “필요 시 법률대리인이 입장 밝힐 것” /사진 뉴시스
▲ 나경원 “파트 투쟁, 했어야 할 일…한동훈, 투쟁한 동지를 범법자 만들어”

▲ 오세훈 “이재명 같은 정치인, 웬만한 부패해도 그냥 넘어가”
▲ 북한, 울들어 9번째 오물풍선 살포…대북 확성기 방송에 반발



▲ 민주당대표 3차 경선도 이재명 90% 압승…최고위원 정봉주 1위 /사진 뉴시스
▲ 원희룡 “한동훈, 정치 기본은 돼 있으나…한 불가론 퍼지는 중”